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 및 2024 NEAR 회원단체 워크숍 (5.23)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2024.5.27.(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북일보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내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서 열려	
2	신문	경북도민일보	동북아6개국 광역지방정부 공동발전 '교류 협력의 장'	
3	신문	대경일보	경북도·동북아자치단체연합 교류 강화	
4	신문	경북신문	道, 경주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5	신문	일간경북신문	동북아 6개국 44개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6	신문	경안일보	2024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 개최	
7	신문	경상투데이	동북아 6개국 지방정부, 인적 네트워크 '확대'	
8	신문	대구경북일보	동북아 6개국 참석, 지역 공동발전·번영 실현 협력	
9	신문	세명일보	경북도, 2024년 동북아자치련 워크숍 개최	
10	신문	전국매일신문	경북도, 동북아시아 공동발전·우호 교류협력 논의	
11	인터넷	한국일보	동북아 지방외교의 중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12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경북도, 2024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개최	
13	인터넷	대구신문	경북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14	인터넷	KPI뉴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경주에서 개최	
15	인터넷	에너지경제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 개최	
16	인터넷	쿠키뉴스	경북도, '2024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개최	
17	인터넷	노컷뉴스	경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개최	
18	인터넷	뉴시스	동북아 6개국 지방정부 관계자들, 경주서 공동발전 논의	
19	통신사	NSP통신	경북도, 2024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 개최	

동북아 6개국 광역지방정부 공동발전 '교류 협력의 장'

경주서 NEAR 워크숍 개최 44개 회원단체 130명 참석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강화

경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경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국장급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은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

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일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 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파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상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경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kws@hidomin.com

동북아 6개국 44개 광역지방정부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장인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이 22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막이 올랐다.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등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의 6개국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3일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파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상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또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경북도·동북아자치단체연합 교류 강화

경주서 내일까지 NEAR 워크숍 6개국 44개 회원단체 130여명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 논의 사무국 행사 추진 현황 보고

경상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은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일 차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파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상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

행한다. 그 외에도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이명진 기자

경북신문

道, 경주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6개국 44개 단체 내일까지 참석 경북도가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

단체 130여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003면 사회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2일은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3일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

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파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의 '경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서인교 기자

일간경북신문

동북아 6개국 44개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경북도, 24일까지 경주서 워크숍 중국 등 회원단체 130명 참여 경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

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5.22.)은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일 차(5.23.)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003면 경북

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파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경미 기자

2024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 개최

22~24일 경주 힐튼호텔
공동발전 위한 교류협력 강화
한국의 역사·문화·산업 탐방

경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경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

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22일)은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

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일 차(23일)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트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파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상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액

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bo.com

동북아 6개국 지방정부, 인적 네트워크 '확대'

경주에서 'NEAR 워크숍' 열려
국가 공동 발전·번영 실현 논의
박철민 울산 대사 감사패 전달
행정부지사 기조 강의 등 눈길

경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

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경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인 22일에는 국제관계대사

+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일 차 5월 23일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트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파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

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액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며 "**경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동북아 6개국 참석, 지역 공동 발전 · 번영 실현 협력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경상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 호텔에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등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 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

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 22일에는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일 차 23일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파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상북도와 동북아 지

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경북도, 2024년 동북아자치련 워크숍 개최

동북아 6개국 44개 광역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장

경북도가 22~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경북도**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 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은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일 차 개막식에는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다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황보문옥 기자

전국매일신문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010면 행정

경북도, 동북아시아 공동발전·우호 교류협력 논의

동북아 6개국 44개 광역지방정부 워크숍 개최...인적 네트워크 강화

경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

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2일 회의 첫날은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3일 개막식에는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또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대구/경북

동북아 지방외교의 중심 동북아자치 단체연합 워크숍

입력 2024-05-23 14:39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참석자들이 23일 경주 보문단지 내 힐튼호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교류의 장인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이 22~2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워크숍에는 NEAR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6개국 81개 회원단체와 1개 준회원단체 중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NEAR은 1996년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다. 호혜·평등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를 확대해 지역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이의근 경북지사가 초대 의장을 역임했고, 현 의장은 중국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이다. 포함에 상설사무국이 있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인 22일에는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일차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따라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기조 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또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경주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에도 할 예정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경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경북도, 2024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개최

김용묵 기자 kimym3398@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4.05.22 20:33

5월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동북아 6개국 44개 NEAR회원정부 참석

[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는 22~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44개 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5.22.)은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일 차(5.23.)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따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 6개 시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간 교류 방안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며 "경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묵.김경철기자

경북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윤이아람 | 승인 2024.05.22 17:30

| 동북아 6개국 44개 회원단체 교류협력 장 마련

경상북도는 22~2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경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다.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해 진행된다. 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를 뒀다.

이 기간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무힌 브세볼로드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제1부 총리, 볼강아이막 따리 자르갈사이 항 몽골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기조연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 시간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경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 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아람

KPI뉴스 > 전국 > 대구/경북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경주에서 개최

전주식 기자 / 기사작성 : 2024-05-22 15:04:08

22~24일 회원 6개국 44개 단체 130여명 참석

경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회의 첫날은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일차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따리 자르갈 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상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 KPI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s://www.kpinews.kr>]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2 15:25

경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 44개 회원단체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다.

NEAR는 1996년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 6개국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부지사 및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NEAR 회원단체 간의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날인 22일에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가 열린다.

23일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의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의 따리 자르갈 사이항 부지사 등이 참석하며,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경상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NEAR 사무국의 업무 보고와 회원단체 간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

참석자들은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간 교류와 우호 협력 관계를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경상북도는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정재우 (jjw5802@ekn.kr)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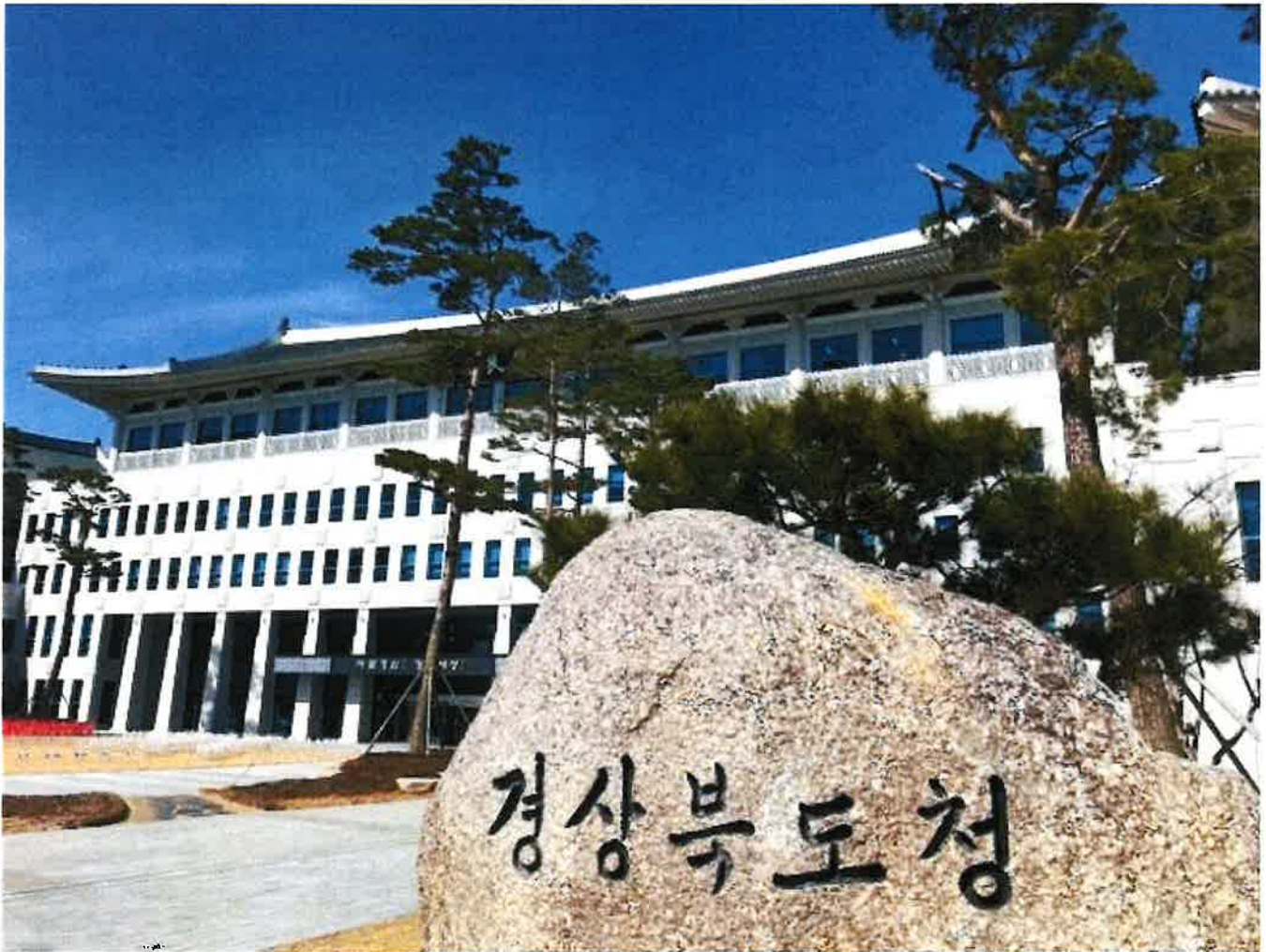
프린트

취소

경북도, '2024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개최

노재현 / 기사승인 : 2024-05-22 16:06:04

동북아 6개국 44개 광역지방정부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장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을 개최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1996년 경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동북아시아 6개국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 44개 회원단체에서 130여명이 참석해 교류협력의 장을 펼친다.

참여범위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확대했다.

특히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 첫날인 22일은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하는 '국제관계대사 +1 간담회'를 개최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23일 2일차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따리 자르 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연다.

이날 개막식은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상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 이어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갖는다.

이어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이해하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경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개최

2024-05-22 09:55 대구CBS 이규현 기자 |



경북도청. 이규현 기자

경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 81개 회원 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외에도 경주 문화탐방과 포항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6148355>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 6개국 지방정부 관계자들, 경주서 공동발전 논의

류상현 기자 입력 2024. 5. 23. 15:41



[안동=뉴시스]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고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 (사진=경북도 제공) 2024.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동북아 국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발전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경주에 마련된다.

경북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NEAR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했다.

NEAR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경북도가 제안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 단체가 가입해 있다.

이번 워크숍은 참석자를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확대하고,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회의 첫날인 22일에는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일 차(23일)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불강아이막 따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상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이 진행됐다.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도 있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에 경북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2024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워크숍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05-22 17:57 KRX7

#경북도 #이철우도지사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워크숍

동북아 6개국 44개 광역지방정부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장(場)마련



경상북도는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을 개최한다.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의 6개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키르기스스탄) 44개 회원단체 130여 명이 참석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

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81개 회원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가 가입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추진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의 첫날(5.22.)은 국제관계대사+1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 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4차 NEAR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공적이 큰 울산시 박철민 국제관계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일 차(5.23.)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무힌 브세볼로드 제1부 총리, 몽골 볼강아이 막 따리 자르갈사이항 부지사, 울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경상북도와 동북아 지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NEAR 사무국의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현황 보고 ▲회원단체 국제행사, 홍보 사항 등 발표 ▲회원단체 간 일대일 친교의 시간 등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엑스포공원 등 문화탐방과 포항시 일대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쟁과 대립이 주목받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URL :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699657>